

기독교청년 자조금융 데나리온BANK 10년을 돌아보며

- 그 소문의 낙원

들어가며: 봄바람이 휘날리는 3월부터 소문의 낙원이 깃가에 울리던 날

2016년 3월에 시작했다. 봄이 막 시작되면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모두의 깃가에 울리던 그때였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설렘과 따뜻함을 떠올리게 한다. 90년대 생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등장에 기성세대들 모두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난 데나리온BANK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름의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벚꽃 엔딩」은 다들 알지만,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어쩌면 2016년 안녕하지 못한 우리, 청년세대들은 헬조선, N포세대라는 틀에 갇혀서,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기대어 현실의 쓸쓸함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데나리온BANK 10차 총회는 2026년 「소문의 낙원」이 흘러나온다.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붓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봄바람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여유이며,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그런 감정을 쉽게 누리지 못한다. 그 희망이라는 소문의 낙원에 얻을 것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자신의 강박, 자신만의 신경증을 안고 살아간다. 취업과 이직, 주거비와 대출, 불안정한 노동환경,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경쟁 속에서 내일을 계획하기조차 쉽지 않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불평"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날의 청년현상은 불평보다는 '경고'가 맞겠다. 아직 팬데믹을 겪은 세대들이 20대가 되지 못했다. 아직 카오스, 대환장의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우리는 목격했던, 명확하게 계급화되고, 뚜렷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력하면 된다고, 이전 세대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처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체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을 함께 찾기 위한 출발점이다.

본말: 데나리온BANK, 2016년 그날 청년자조금융을 왜 시작했을까?

① 휴밥과 컵라면이 남아있는 청춘의 초상

구의역 김군도 죽었고, 태안의 김용균도 죽었다. 그들이 남긴 유품 속에는 언제나 뜯지 않은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라는 '지옥고'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삼켜내야 했던 것은 먼지 섞인 '휴밥'이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비참한 식탁은 오늘날 청년 비정규직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유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발은 노동 시간 쪼개어 당장 배고픔을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강도가 가혹할수록 식탁은 부실해진다. 안전 규칙과 현장 준칙들이 문서로 존재하지만, 기업들은 너무나 쉽게 이를 무시한다. 당

연한 일이다. 우리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존엄이나 법과 규칙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언제나 절대 우위에 서는 곳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간과하는 엄연한 진실이 있다. 그 어떤 화려한 AI 시스템과 자동화 공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손과 생명이 없이는 이 세상은 단 일 분도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② 얽히고설킨 방정식 : 청년과 노동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공방을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온다. 거시경제 지표에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정치권은 늘 그렇듯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방패막이 삼아 본질을 흐린다. 평소에는 서민들의 삶에 그리 관심도 없던 이들이, 정책을 발목 잡거나 정쟁을 유발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민생 수호자'로 빙의한다.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케팅은 언제나 패키지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 환경 개선 같은 거대한 변화는 당연히 연쇄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렇기에 정치가 존재한다. 세제 혜택이나 정교한 복지 인프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그 반작용을 흡수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맹목적 반대와 정쟁을 위한 정쟁은 불쌍사나울 뿐이다. 금융 수수료나 주거비, 공공요금처럼 서민의 목을 죄는 진짜 악탈적 구조들은 손대지 않으면서, 오직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구태의연함은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답할 노릇이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현장의 단체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이 정당 정치의 직무유기 탓이 가장 크다.

이렇듯 청년 문제는 결코 단편적인 사안이 아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구조적 문제들의 총체다. 도미노처럼 기적의 정책 하나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마지노선인 동시에 전체 노동 시장의 생존권이 걸린 핵심 사안이다.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고약한 제도다. 과거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한 채 'YOLO(올로)'를 외쳤다면, 지금 2026년의 청년들은 AI 대체 위기와 상시적 구조조정 속에서 극단적인 '생존주의'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 환경의 개선을 향한 싸움은 늘 처절하다. 자본과 사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판 위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생존, 그리고 가족의 희생을 갈아 넣으며 싸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언제나 가진 것 없는 이들이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는 싸움이기엔, 설령 이긴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태반이다.

③ 노력이라는 이름의 개미지옥과 파편화된 청년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잔인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오롯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다. 취업 실패, 주거 불안, 삶의 다양한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을 두고 사회는 청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몰아세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담론을 주입한다. 노력의 두께만큼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는 감언이설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노력의 두께가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애초에 우리 사회에서 '노력'이란 철저히 승자의 언어이자 결과론적인 지표에 불과하다. 성공하면 '노력한 사람'이 되고, 실패하면 '노력하지 않은 패배자'가 된다.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시대에서 노력이란 기묘한 가스라이팅이다. 점수와 시험, 자격증 몇 개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는 구도 속에서, 사회는 단 한 문제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경쟁 체제를 정당화한다. 입시도, 취업도, 커리어 쌓기도 모두 같은 개미지옥이다.

청년들을 이 벼랑 끝 경쟁으로 밀어 넣은 것은 이 사회다. 사회가 청년들을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로,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는 각자도생의 인간으로 개조했다. 청춘의 특권이라 불리던 꿈과 낭만은 박물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대학가에서 총학생회를 구성할 사람조차 찾지 못하는 기현상은 더 이상 낯설

지 않다. 구조적인 궤도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거나 한눈을 팔면 곧바로 '루저'로 전락한다는 공포심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루저란 곧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연봉과 자산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철저히 쪼개지는 엄혹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나 공익, 연대 같은 가치는 사치일 뿐이다. 타인을 돌아보기 위해선 일정 부분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한데,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긴 판에 공익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④ 채무자 세대에서 불안정 세대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국어사전이 정의하는 '빚'이란 "남에게 빌려 써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나 의무"를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빚은 대부분 돈의 형태를 띤다. 신용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영끌과 전세 사기 바람 속에 남겨진 주거 대출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이 수많은 빚이 내 손이나 통장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디지털 숫자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매달 찾아오는 카드 결제일과 대출 이자 상환일이다. 통장 내역을 마주하는 순간 절망하고 반성하지만, 이미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소비하는 패턴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은 청년들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마비시킨다. 신용카드나 각종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는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 않는다.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욕망을 앞당겨 쓰는 '미래 저당 잡히기'다. 미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소비는 이미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이를 '합리적 소비'라 포장하지만, 결국 빚이 꼬리를 무는 굴레 속으로 청년들을 밀어 넣을 뿐이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받기 위해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될 최소 결제 금액을 맞추려 과소비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일상이 된 이유다.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있다. 남들 다 가니까 대학 문을 두드렸지만, 한 학기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등록금은 장벽이다. 평범한 가정 형편에 이 거금을 매번 현금으로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국가가 가장 달콤한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학자금 대출'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어디 등록금만으로 가능하던가. 전공 서적을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위한 비용도 필요하다. 게다가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2026년의 고용 한파 속에서 겨우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면 각종 자격증 학원비와 영어 시험 응시료는 필수다. 결국 '생활비 대출'이라는 이름의 빚을 추가로 얻는다.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4년을 버텨 졸업장을 쥐었지만, 시장은 차갑기만 하다. 대기업 문턱은 갈수록 좁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메말랐다. 결국 취업을 미루며 스펙을 더 쌓거나 대학원에 진학해 보지만,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년을 반기는 것은 평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출발선'이다. 빚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목덜미를 잡고 속삭인다. "네가 다 쓴 돈이니 이제 갚아야 하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어디든 가서 일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청년은 곧바로 '채무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부여받는다.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며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신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대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해가 갈수록 치솟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적자 상태거나 빚을 안고 시작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 오늘날의 청년들을, 우리는 '채무자 세대' 외에 달리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

주거 현실은 더 참혹하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서 독립해 거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금리 탓에 서울의 서민용 원룸 월세조차 평균 60~70만 원을 호가한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마침내 1만 원 시대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고물가와 세금을 떼고 나면 월 소득은 여전히 200만 원 안팎이다.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면 빈곤 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UN의 기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청년들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와 공공요금으로 뜯기고 있다. 미래를 기획할 안정성 따위는 없다. 그저 이번 달 월세와 다음 달 카드값을 무사히 막아내는 것이 지고지순한 목표가 된 세대다.

데나리온BANK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① 그래, 나도 빛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선택하는 생존 전략은 눈물겹다. 소득이나 가용 자금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식비를 아끼고(편의점 간편식이나 저가 커피로 연명하며), 친구와의 만남을 끊고, 문화생활을 포기한다. 당장 매달 나가는 월세와 대출 이자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절감이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고립된 청년들은 점점 더 혼자자가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며, 자신이 이 거대한 사회 체제의 아웃사이더라는 무력감에 빠져든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생긴 이 모든 빛과 가난을 '내가 무능한 탓', '내 부끄러운 잘못'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인프라가 빛으로 굴러가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할부금, 노트북, 하물며 지금 살고 있는 전·월세 집까지, 실상은 모두 빌려 쓰는 자본의 연장선일 뿐이다.

문득 성서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떠오른다.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일이 끝나기 고작 한 시간 전에 온 마지막 일꾼이나 똑같이 하루 치 임금(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지독한 능력주의와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현대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대단히 불공평하고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거부감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왜 마지막 일꾼이 그토록 늦게 일터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질문하지 않는다. 인력시장에서 가장 먼저 뽑혀 간 이들은 건강하고 조건이 좋은 이들이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일꾼은 신체적 조건이 불리했거나, 기회가 닿지 않아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었을 뿐이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리를 서성이던 그 절박한 이들을, 포도원 주인은 거두어 똑같은 살길을 열어주었다.

이 논리를 2026년의 현실에 대입해 보자. 오늘날 청년수당이나 기본소득, 청년 주거 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과거 베이비붐 세대의 고성장이 출발선과, 인구 소멸 및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2026년 청년들의 출발선이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천정부지의 교육·주거 비용 속에서,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은 사회라는 인력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서성이는 '마지막 일꾼'들일지도 모른다.

'한 데나리온'은 당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의 비용이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확천금이 아니다. 당장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여유, 그리고 실패해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데나리온 BANK'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년들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던 '작은 삶의 여유'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만드는 자조(自助) 금융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돈을 빌려주며 눈치를 주는 기존 금융권과 달리, 조합원 서로가 서로의 비상금이 되어주는 심리적 든든함.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빛을 부끄러운 치부로 감추지 않고, 냉혹한 현실을 당당하게 직시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 모순을 건강하게, 그리고 대안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연대의 플랫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청년자조금융'의 진짜 얼굴이다.

② 마음의 회복, 그리고 세대 간의 진짜 공론장

이렇듯 파편화되고 고립된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들을 '각자도생의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청년들끼리 모여 서로를 위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청년 주거, 일자리, 금융 등 다방면에서 입체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 구체적인 청년 생태계의 대안들은 향후 'N포 세대 시리즈'를 통해 하나씩 짚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그 어떤 화려한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할 최종 과제는 바로 청년들의 '마음의 회복'이며, 이 사회가 타인의 고통에 조금 더 온정적인 사회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사회적 불신을 걷어내는 데는 분명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법이 있다. 바로 이 문제를 공적인 공론장으로 당당히 끌어올리는 것이다.

청년 문제를 시혜적인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가 통렬하게 인지해야 한다. 건강한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갈등이 본질적인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청년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날 것 그대로 털어놓을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조차 갖지 못했다. 가장 포용적이어야 할 종교 공동체나 지역 사회마저도 기성세대의 문법을 강요하며 청년들에게 더 큰 절망감과 부채감만 안겨주기 일쑤다.

③ "내가 김용균이다. 내가 비정규직이다. 내가 청년이다."

이 처절한 구호가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언제라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정체성의 자각이다. '존버(끝까지 버티기)'하는 이가 결국 승자가 된다는 이 세상의 룰이 너무 슬프지 않은가? 버팀의 끝에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달게 버티겠지만, 아무런 대안도 변화도 없는 사회에서 '존버'란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연명 치료에 불과하다.

다시 교회에 묻는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공동체를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는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며, 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쓸모가 있어서 세우신 것이라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썩어 문드러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일갈했던 청년 예수의 서슬 서린 예언처럼, 약자의 고통에 눈감는 교회는 적어도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

가장 위험한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의 쉼 자리를 외면하는 교회, 흠밥과 컵라면으로 연명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마음이 없는 교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맞이할 해방의 신학이 없는 교회, 그리하여 스스로를 갱신할 능력을 상실한 채 기득권의 성채가 되어버린 교회라면—설령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한들,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나가며, 자조금융의 쓸모

이제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

연대경제는 경쟁 대신 협력을, 이윤보다 사람을,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하는 경제적 실천이다. 협동조합, 공제회, 상호부조기금, 공동체 금융은 모두 이러한 연대경제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데나

리온BANK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작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실험이다.

성서 속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엄청난 부자가 될 기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실패해도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다.

청년운동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청년들의 삶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각자도생의 질서를 넘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데서 시작된다.

데나리온BANK는 금융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돈보다 관계를, 경쟁보다 연대를, 생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내민 작은 손길에서 시작되었다. 데나리온BANK는 그 손길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연대의 약속이며,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름이다.